

* 프로그램 일정 및 신청안내

- 장소: 서소문 본관 3강의실(B1)
- 일정: 2018.6.12.(화), 6.26(화)
12:00-13:00 (동일한 프로그램 2회 진행)
- 신청방법: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40명
- 참가비: 10,000원/1인
- 납부방법: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 접수 후 계좌 입금
- 문의전화: 02)2124-8909, 8924

- * 총괄: 백기영(학예연구부장), 유수기(교육홍보과장)
- * 큐레이터: 추여명
- * 코디네이터: 이예은, 유정원
- * 디자인: 이준한

* Program Information

- Venue: 3Classroom, B1, SeMA Seosomun Main Building
- Date & Time: Jun.12 & 26
12:00-13:00(Same program operated on both dates)
- Apply: Application accepted through the public reservation system(<http://yeyak.seoul.go.kr>)
- Number of Participants: 40 People
- Entry Fee: 10,000 Won
- How to Pay: Make a wire transfer after applying via the public reservation system(The name of the account holder must be the same as the applicant.)
- Tel: 02)2124-8909, 8924

- * Organizer: Seoul Museum of Art(SeMA)
- Supervisor: Peik Ki Young(Head of Curatorial Bureau), Yoo Su Gi(Head of Education & PR Division)
- * Curator: Chu Yeonyung
- * Assistant: Yeeun Lee, Yoo Jung Won
- * Graphic Design: Lee Junhan

예술가의 런치박스 2018

Artist's Lunch Box

EAT + TALK + LOVE + ART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워크숍, 토크 등의 활동을 함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과 연결된 음식이 제공됩니다. 미술관에서 한 끼의 예술을 맛보세요.

Artist's Lunch Box is a program that approaches contemporary art through ordinary activities, like eating, drinking, and talking. Participants take part in performances with artists, or activities such as workshops and talks, and food and refreshments are provided with each program.

6월 작가 라오미 Rhaomi

라오미 작가는 서양화와 졸업 후 사극영화미술, 무대미술을 했고 한때 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며 복원모사가를 꿈꾸기도 했다. 서양과 동양, 현실과 이상, 전통과 현대 등의 혼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을 주제로 시작한 <유람극장 프로젝트(2017)>를 폐관되어버린 청계천의 바다극장과 인천 미림극장에서 새롭게 전시를 구성해 가고 있다. 이번 예술가의 런치박스에서는 유토피아나 역사적 관광장소가 아닌, 일상과 개인의 기억을 유람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내용 내 기억을 복원하고,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영화다. <예술가의 런치박스 — 동시상영극장>은 티켓팅을 하고 들어온 관객의 기억이 상영되는 극장이다. 그러니까 참여하게 될 당신, 그리고 마주한 참가자들이 스스로 기억의 특정한 순간을 함께 말함으로써 동시에 상영되는 것이다. 일단 입장하면 더 이상 관객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장의 기억복원사, 시나리오 작가, 주인공이자 감독이 된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복원/합성/수정하듯이 이제 당신의 기억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른 이의 기억과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객이자, 배우, 작가를 모집한다.

준비물: 복원하거나 영화로 만들고 싶은 나의 인생 사진 1장을 준비해 가져오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미리 보내주시면 현상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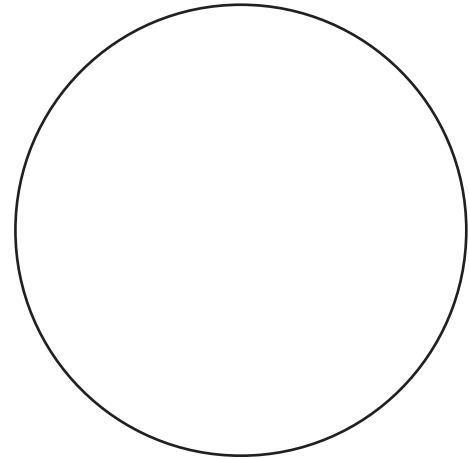
식사메뉴
프로방스식 라따뚜이를
곁들인 햄버그 스테이크
경양식

요리협업
신민섭(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접근하기 쉽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홍대 루블랑과 연남동 에콜리 오너셰프로, 이번 런치박스를 위해 과거 미림극장에서 상영되던 광고 속의 70-80년대 경양식을 새롭게 구성하여 선보인다.)

예술가의 런치박스 — 동시상영극장

~~20180612~~

20180626



서소문 본관 3강의실(B1)

~~12:00-13:00~~

워크숍 및 퍼포먼스 참여 등으로 인하여 12시 30분 이후에 경량의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프로그램 일정 및 신청안내

- 장소: 서소문 본관 3강의실(B1)
- 일정: 2018.6.12.(화), 6.26(화)
12:00-13:00 (동일한 프로그램 2회 진행)
- 신청방법: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40명
- 참가비: 10,000원/1인
- 납부방법: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 접수 후 계좌 입금
- 문의전화: 02)2124-8909, 8924

- * 총괄: 백기영(학예연구부장), 유수기(교육홍보과장)
- * 큐레이터: 추여명
- * 코디네이터: 이예은, 유정원
- * 디자인: 이준한

* Program Information

- Venue: 3Classroom, B1, SeMA Seosomun Main Building
- Date & Time: Jun.12 & 26
12:00-13:00(Same program operated on both dates)
- Apply: Application accepted through the public reservation system(<http://yeyak.seoul.go.kr>)
- Number of Participants: 40 People
- Entry Fee: 10,000 Won
- How to Pay: Make a wire transfer after applying via the public reservation system(The name of the account holder must be the same as the applicant.)
- Tel: 02)2124-8909, 8924

- * Organizer: Seoul Museum of Art(SeMA)
- Supervisor: Peik Ki Young(Head of Curatorial Bureau), Yoo Su Gi(Head of Education & PR Division)
- * Curator: Chu Yeonyung
- * Assistant: Yeeun Lee, Yoo Jung Won
- * Graphic Design: Lee Junhan

예술가의 런치박스 2018

Artist's Lunch Box

EAT + TALK + LOVE + ART

예술가의 런치박스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현대미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워크숍, 토크 등의 활동을 함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과 연결된 음식이 제공됩니다. 미술관에서 한 끼의 예술을 맛보세요.

Artist's Lunch Box is a program that approaches contemporary art through ordinary activities, like eating, drinking, and talking. Participants take part in performances with artists, or activities such as workshops and talks, and food and refreshments are provided with each program.

6월 작가 라오미 Rhaomi

라오미 작가는 서양화와 졸업 후 사극영화미술, 무대미술을 했고 한때 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며 복원모사가를 꿈꾸기도 했다. 서양과 동양, 현실과 이상, 전통과 현대 등의 혼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와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을 주제로 시작한 <유람극장 프로젝트(2017)>를 폐관되어버린 청계천의 바다극장과 인천 미림극장에서 새롭게 전시를 구성해 가고 있다. 이번 예술가의 런치박스에서는 유토피아나 역사적 관광장소가 아닌, 일상과 개인의 기억을 유람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내용 내 기억을 복원하고,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영화다. <예술가의 런치박스 — 동시상영극장>은 티켓팅을 하고 들어온 관객의 기억이 상영되는 극장이다. 그러니까 참여하게 될 당신, 그리고 마주한 참가자들이 스스로 기억의 특정한 순간을 함께 말함으로써 동시에 상영되는 것이다. 일단 입장하면 더 이상 관객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극장의 기억복원사, 시나리오 작가, 주인공이자 감독이 된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복원/합성/수정하듯이 이제 당신의 기억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른 이의 기억과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객이자, 배우, 작가를 모집한다.

준비물: 복원하거나 영화로 만들고 싶은 나의 인생 사진 1장을 준비해 가져오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미리 보내주시면 현상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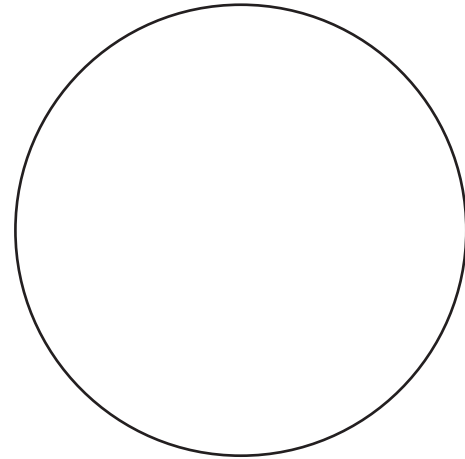
식사메뉴
프로방스식 라따뚜이를
곁들인 햄버그 스테이크
경양식

요리협업
신민섭(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접근하기 쉽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홍대 루블랑과 연남동 에콜리 오너셰프로, 이번 런치박스를 위해 과거 미림극장에서 상영되던 광고 속의 70-80년대 경양식을 새롭게 구성하여 선보인다.)

예술가의 런치박스 — 동시상영극장

20180612

~~20180626~~



서소문 본관 3강의실(B1)

~~12:00-13:00~~

워크숍 및 퍼포먼스 참여 등으로 인하여 12시 30분 이후에 경량의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